

불살생계, 생명존중 사상 담겨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7>

▲원문

다시 태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토하약(吐下藥)이나, 여러 곳에 넣는 약이나, 침으로 혈맥을 찌르거나, 눈물이 나게 하는 약을 주며 '이 인연으로 여자가 죽어 버려라' 하는 것이다. 만약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이 인연으로 나중에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 인연으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어미를 죽이기 위해 일부를 태를 떨어뜨렸는데, 만약 어머니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태어난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만약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태아를 죽이기 위해 일부를 태아를 떨어뜨려 태아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태아가 죽지 않으면 중급의 죄

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고,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태아를 떨어뜨려 죽이는 법이다.

오계상경-11

▲강의

살생 행위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생하는 것. 둘째 교살(敎殺)하는 것. 셋째 총, 투석, 매질 등으로 살생하는 것. 넷째 함정을 파서 빠뜨려 죽이는 것. 다섯째 신통의 힘을 통한 살생. 여섯째 주술 등에 의한 살생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든지 중생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살생이라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오계상경>에서는 낙태와 안

락사에 대해서도 모두 중죄로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였다.

살생을 하면 오랫동안 죄의식으로 고통 받고, 보다 열등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업보를 받는다. 만약 살생을 한 사람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그는 악하고, 추하고, 소의 당하고, 용기 없고, 친구도 없이 항상 낙담과 슬픔

천의 헛수로 오백세 동안 지옥에 떨어진다 하신 것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군으로서 마군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역시, 하품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하였

낙태·안락사 시킨 죄 참회 불가 살생하면 열등한 형태로 환생

속에 잠기게 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오래 살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 한다.

<불살생계경중경>에 의하면, "만약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버리 하 고, 계를 범하면 사천왕천(四天王天)의 헛수로 오백세 동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인간 세상의 헛수로 구백천 년이다." 하였다. 또 <열반경>에 이르기를 "만약 누군가가 '부처님이 들 길라(惡作)를 범한 이는 사천왕

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살생하려는 것을 보면 마땅히 힘닿는 대로 구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원한이 맺히는 것을 풀고, 악연을 끊도록 축원해야 한다.

살생에 있어 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첫째, 살해하려는 마음 없이 잘못해서 죽게 되었을 때와 미치고 혼란해서 마음이 파괴되었을 때이다. 처음 오계를 수계할 때 삼귀의를 마치면 곧

'무작계'를 얻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 무작계체를 잃게 된다. 무작계체를 잃게 되면 다시 우바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회할 수 없는 죄'라 하는 것이다.

불교 계율에서 불살생계는 가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지비를 베풀도록 마음 속에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고 살생계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된다. 계율에서 불살생계를 첫머리에 둔 까닭은 생명 존중 정신과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모든 중생이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 것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죄업은 없다.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목숨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살생 계율의 첫머리에 불살생계를 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살생이 '불살의 씨앗'이라 자비심을 애초부터 기억하는 행위가 때문이다. 불살생계에 담긴 참뜻은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서 서로 돕고 서로 살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서로의 생명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노력 자체가 깨달음의 씨가 되어 무한한 행복과 자유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해인총림 윤원징>

"사물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 벗어날 수 있어"

불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 시초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살아 있는 존재의 시작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구여! 이 순환에는 볼 수 없는 끝이 없다고. 무명으로 덮여있고 갈래의 족쇄에 묶여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존재의 시초는 인지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윤회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무명에 대해서도 시초가 되는 무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바 국토를 일러 생사고해라고 합니다. 이승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허망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승에서의 삶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정한 불교인은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평하고 평온하며 그 어떤 변화나 재난에 처해서도 좌절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교인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음울하거나 슬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을 언제나 미소짓는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불교 회화속에 표현된 부처님도 평온하고 원만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결코 어떤 고통이나 고뇌나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게 마련이지만 불교인이란 그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에 대해 성내거나 못건뎛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에 의거한 삶의 근본적인 악 중에 하나가 분노와 증오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고통이며, 고통과 관계된 것에 대한 악의(惡意)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상태나 악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못견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못견디거나 성내다고 해서 사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 증가시켜 이미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필요한 것은 고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인내, 지성, 결단, 용기로서 고통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회중계

법화사 일요법회

<2000년 4월 30일>



시몽스님 (제주법화사 주지)

좌절하고 성내기 보다 인내하고 정진하는게 진정한 불교인의 생활

오며 정진적 생활을 즐기며 만족하며 근심이 없고 평온하며 사슴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다시 "이 존경할 만한 분들의 건강 한 기질은 여래(如來) 가르침의 위대하고 완전한 의의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교는 우울하고 슬프고 음울한 마음가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한 태도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이를 태연 기쁨이 열반의 실천을 위해 갈고 닦아야 할 본질적 자질인 칠각지(七覺支)의 하나라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ejeel@buddhania.com)

伊정부 90년 '불교' 공식 승인

세계의 불교학 <17> 이탈리아

가톨릭의 본고장 이탈리아. 현재 이곳에서의 불교학은 경전을 해석하고 타종교와 비교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교리'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그 또한 대학이나 연구소보다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주도할 만큼 열악한 형편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이탈리아 보수 계층을 대변하는 일간지 '코리에르 데라 세라(Corriere della Sera)' 지가 '붓다와 함께 행복한 유럽'이라는 특집을 내놓을 만큼 불교에 관심을 두는 이탈리아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불교학의 태동기'라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이탈리아 불교는 사실 90년에서야 정부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종교인 구조조사에 따르면 약 3만여 명의 불자들이 있었다. 물론 이는 수 4년 뒤 약 10만여 명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 최초의 불교단체인 불교연합(UBI)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 단체는 93년 이탈리아 불교 출판업자이자 독실에서 인도학을 공부했던 스크레라(Skrela)가 투린 시에서 철학·동양학 등을 전공하

는 학자들과 결성했다. 스크레라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지비를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건설한 사회적 도덕의 싹을 피우고자 했다"며 불교연합 창립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불교연합은 바티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본부를 두고 5개 대도시에 지부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가톨릭과의 경쟁보다는 융합을 기반으로 불교를 알리고 있다.

사실 불교연합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불교 포교론에서는 가톨릭의 본고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포교의 난관'을 그대로 엮을 수 있다. 이 포교론은 '사이비 종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탈리아 내 아시아인 불자들이 긴밀히 협력한다' '가톨릭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탈리아 내 대학과 연구소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에서 교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곳인 포마이아 토스카나(Pomaia Toscana), 살라마기오레 에미리아(Salamaggiore Emilia), 세제 로마노 라이움(Sezze Romano Lium) 등 티베트 불교 사원이다. 이중 포마이아 토스카나(Pomaia Toscana)는 티베트 불교

사찰·불교단체서 교리 연구 주도 '불교연합' 지부결성 등 포교 활발

수행처로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현재 계승 부브텐 니가왕(Geshe Thubten Ngawang) 스님을 중심으로 티베트 스님 3명, 이탈리아 비구 2명, 비구니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학의 체계적 연구'라는 교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티베트 장경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고, 이를 계간으로 발행하는 <티베트와 불



◇불교연합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불자들.

교)에 게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 대해 에미카나(로마대·사회학) 교수는 "불교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는 반면 가톨릭은 같은 문제에 심각한 위기감을 먼저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불교학은 아직까지 불교단체나 사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성과 역시 아직은 보잘 것 없지만, 교리 연구를 토대로 가톨릭 중주국인 이탈리아에서 불교에 대한 불신을 조금씩 불식시켜, 포교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93년 불교연합을 결성하며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것에만 신념을 보이는 우리에게, 불교는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던 스크레라의 말이 이탈리아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범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옥외행사용

규격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KS전선사용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설치·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전등배선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림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이제 연등에 반집한 품질이 필요없습니다!!
조림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강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마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종용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되지 않지 방식)

조림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조립용(8cm) ◆ 조립용위에 연임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DP 현우기획